

Meta-analytic Review on the Mental Health among the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Depression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Hyun Ah Kim⁺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Seoul Cyber University, 49 Solmaero, Gangbukgu, Seoul, Korea

Abstract

This study performed a meta analysis on 26 studies(N=3,400) published from 2001 to 2015 concerning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who hav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and depression. This study examine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and effect size of the coefficient for 8 variables(sex, age, sample size, anxiety, acculturation stress, social support, self-esteem, intervention program) which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depression and PTS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se effect sizes by sex, while the effect size was higher among the studies with a larger female sample (more than 200 refugees) than those with a smaller male sample (less than 200 refugees). The largest effect size was found for acculturation stress($\bar{r}=.235$), followed by anxiety($\bar{r}=.104$), social support($\bar{r}=-.091$), and self-esteem($\bar{r}=-.076$). The average effect size of the intervention program was insignificant($\bar{r}=.031$, 95%, CI:-.120-.078).

Key words: depression, PTSD, North Korean refugee, meta-analysis

1. 서론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1999년 100명에서 시작해서 2002년 1,000명을 넘어선 이래 2010년에는 20,000명을 넘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1년 말 김정은 체제의 엄격한 감시에도 불구하고 2015년 5월 기준 28,054명이다(Statistics Korea, North Korea Statistics, 2015. 9. 17.).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척도 개발 및 효과검증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용

PTSD(Kang, 2001; Yoon, *et. al.*, 2007) 척도개발 2편, 정신건강(Shin, *et. al.*, 2010) 척도개발 1편, 개입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연구 8편(Ko, 2010; Kim & Choi, 2013; Kim, 2012; Kwon, 2007; Kim, *et. al.*, 2014; Lee, 2008; Choe & Son, 2011; Cho, 2013)으로 상당한 양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2001년에서 2015년까지 북한이탈주민의 트라우마 관련 연구 주제들을 분류해 본 결과, 주로 외상경험 16편(38%), 우울 17편(40%), 불안 14편(23%), 문화적응스트레스 4편(10%), 방어기제나 신체화 관련 기타 정신건강 19편(45%), 사회적응

⁺ Corresponding author: Hyun Ah Kim, Tel. +82-2-944-5025, Fax. +82-2-980-6200, e-mail. haha6082@iscu.ac.kr

5편(12%), 회복탄력성 8편(19%), 낙관성 2편(5%), 자존감 7편(17%), 치료프로그램 3편(7%)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관련 연구 중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주제는 우울(24편)과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47편)이다. Kim & Yoo(2010)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는 남한사회 적응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신체 및 정신건강, 심리사회적 적응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증 유병률은 14.9%(Kim, 2006)에서 81.0%(Lee, *et. al.*, 2001)까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 5.7%(Kim, 2000)에서 56.0%(Lee, *et. al.*, 2001)의 유병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거나(Kang, 2001; Kim, 2008; Yoo, 2006) 외상경험(Kim, *et. al.*, 2010; Roh, 2001; Rho & Won, 2000; Son, 2010; Yoo, 2009; Yoo, 2006; Cho, 2005; Cho, *et. al.*, 2009)이나 사회적 지지(Kang, 2008; Kim, 2012; Roh, 2001; Eom & Lee, 2004; Eom, 2005; Lee & Bae, 2006)와 같은 특정변인에 국한된 설명을 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에 관한 종합적인 결론 도출 및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 개입 전략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지가 불명확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간과된 요인들을 살펴볼 수 없다. 메타분석은 효과적인 근거의 통합방법으로 수년간에 걸쳐 축적된 연구들을 요약하고 분석하는 통계방법으로 연구들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종합하는 정량적인 분석방법이다(Song, 2006).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관련 변인들에 대한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해석을 위해서 기존의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가 필요함을 말해준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개입을 위해 먼저 PTSD나 우울에 영향을 주는 예측변인과 중재변인을 파악하고 그 효과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보아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에 축적된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메타분석을 적용하여 우울과 PTSD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PTSD와 우울 연구가 시작된 2000년 이후부터 2015년에 이르기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에 관한 학술지 게재 논문 및 석·박사 논문 등을 수집, 분석, 종합하여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때 PTSD와 가장 공존률이 높은 것은 우울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을 PTSD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으로 보지 않고 각각의 종속변인으로 분석해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 관련 영향요인에 초점을 두고 관련 연구를 진행한 연구물을 종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PTSD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은 무엇인지, 관련 변인들의 평균효과 크기, 변인의 효과크기가 연구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유사한 연구들의 반복된 비효율성을 감소시키고 향후 우울과 PTSD에 관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 예방을 위한 임상적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및 PTSD의 예방 및 개입방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우울, PTSD에 관한 학문적 시사점과 치료 방안에 대한 실천적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 영향력 변수를 확인하고, 관련 변인들의 평균효과크기, 변인의 효과크기가 연구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메타분석을 통해 각 변인들의 효과크기를 비교함으로써 보다 영향력이 있는 변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에 대한 연구결과는 어떠한가?
2.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에 대한 성별의 효과 크기는 어떠한가?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에 대한 성별의 효과크기는 연구대상(청소년과 성인/성인), 샘플크기(200미만/200이상)에 따라 달라지는가?

3.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관련변인(불안, 문화적응 스트레스)과 긍정적 관련변인(사회적 지지, 자존감)의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4. 북한 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를 위한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II. 문헌고찰

1.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증에 대한 연구는 조사지역이나 연구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져왔다. 조사지역별 특성에 따라 중국 체류 북한이탈주민(Lee, *et al.*, 2001), 남한거주 통일부 하나원 교육생(Kim, 2010; Han, 2001), 지역사회 거주(Kim & Yoo, 2010; Eom, 2004; Cho, 2005)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구대상의 크기에 있어서도 100명 이하(Han, 2001), 100-200명 이하(Eom, 2004; Lee, 2001), 200-300명(Cho, 2005), 1,000명 이상(Kim & Yoo, 2010; Kim, 2010)으로 매우 다양하다. 우울증의 측정 도구는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Kim, 2005; Kim, *et al.*, 2008; Kim, 2012; Park, 2006; Eom, 2004; Lee & Park, 2011; Han, 2001; Hong, 2014; Kim, *et al.*, 2011; Jeon, *et al.*, 2008; Park, *et al.*, 2015),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Cho, 2005; Song, *et al.*, 2011)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 밖에도 우울증을 정신건강 척도의 하위척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MMPI(Kim, 2010), SCL-90R(Kim & Jun, 2010; Choi & Kim, 2011), HSCL-25(Kim & Yoo, 2010; Kim, 2006; Lee, *et al.*, 2001)로 측정하고 있었다. CES-D가 가장 많았지만 외국 기준 절단점인 16점을 기준으로 한 연구(Park, 2006), 우울의 경중수준에 따라 21-25점으로 세분화시킨 연구(Kim, *et al.*, 2008; Jeon, *et al.*, 2008), 21점 이상으로 본 연구(Han, 2001), 25점 이상만 본 연구(Kim, 2005; Eom, 2004), HSCL의 경우 불

안과 우울을 동시에 보거나(Kim & Yoo, 2010; Lee, *et al.*, 2001) 우울만 본 연구(Kim, 2006)들도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에 대한 유병률의 차이는 조사지역, 연구대상, 측정 도구 및 측정방법에 따라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2002년에서 2003년 하나원 교육생 821명을 대상으로 한 MMPI-D척도는 연령에 따라 우울 수준의 차이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50대가 20대보다 높았다(Kim & Jun, 2003). CES-D 25점 이상으로 임상적 우울증을 진단하였을 때, 남한 거주 1년 이상 북한이탈주민 367명 중 30.5%의 남성과 34.7%의 여성이 우울증이 있었다(Jeon, *et al.*, 2008). 여성보다 남성의 우울증이 더 심하다는 주장도 있고(Kim & Jun, 2003),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증상 정도에 남녀 간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다(Jeon, *et al.*, 2008). Cho, *et al.*(2005)은 3년 추적 연구에서 처음에는 여성의 우울증이 심하나 남한 정착기간이 길어질수록 남성의 우울증상이 심해졌고 북한이탈주민들은 연령이 높은 집단, 북한에서 결혼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울수준이 높았다. 이렇듯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수준은 연령과 성별, 결혼 유무, 정착기간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Cho & Yoo(2006: 63)은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개입대상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Lee, *et al.*(2001)의 연구에서는 81.0%가 우울을 호소하였다. 2000년 말-2001년도 초에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의 29.0%가 우울 임상군으로 보고되었으며(Han, 2001), 탈북 여성 1,465명 중 27.4%가 MMPI-2 프로파일의 하위유형의 하나인 2-7-0 프로파일로써 우울과 불안, 사회적 상황에 대한 불만감이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을 보였다(Kim & Oh, 2010). 남한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Cho(2005)의 연구에서는 54.7%가 경도 우울 증상을, Kim(2005)의 연구에서는 38.1%가 우울 임상군에 속하였으며, 남한 정착 평균 17개월이 지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우울 및 불안은 약 48.0%의 유병률을 보였다(Kim, *et. al.*, 2010).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남한사회 정착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Kim & Oh, 2010; Han, 2001)보다 높은 우울수준을 보인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증은 남한 정착 이후에도 지속되며, 오히려 악화된다고 보고되기도 한다. Roh(2001)의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이 남한 정착 후 2~3년에 가장 열악해진다고 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3년 추적 연구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은 점차 심해졌으며 이때 탈북과정의 심리적 외상보다는 남한 정착 후의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Cho, *et. al.*, 2005). 다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정착 초기에 높은 우울 증상이 점차 낮아지다가 2년이 지나면서부터는 다시 악화하는 U자형 곡선을 보였다(Lee & Eom, 2003).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거주 기간이 길수록 우울증상이 감소하거나(Kim, 2005), 큰 관련이 없었다(Kim, 2006).

인구사회학적 변인 이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관련 변인은 자아존중감(Kang, 2008; Kim, *et. al.*, 2012; Rho & Won, 2009; Park, 2006; Lee & Bae, 2006), 적응유연성 혹은 탄력성(Lee, 2013), 생활만족도(Kim, 2012; Lee & Eom, 2003), 사회적 지지(Kang, 2008; Roh, 2001; Eom & Lee, 2004; Eom, 2005; Lee & Bae, 2006)였고 부정적 관련변인은 문화적응스트레스(Kim, *et. al.*, 2012; Lee, 2013; Cho, *et. al.*, 2009; Hong, 2014), 외상경험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Kim, *et. al.*, 2010; Roh, 2001; Rho & Won, 2009; Son, 2010; Yoo, 2009; Yoo, 2006; Cho, 2005; Cho, *et. al.*, 2009) 등이었다. 그 밖에도 북한 내에서의 심리적 외상이 많을수록 남한 사회에서 스트레스 경험이 많을수록 건강이 나쁜 집단,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울수준이 높았다(Cho, 2005). 또한 적응스트레스 중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소외차원이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6). 남한 문화지향성을 중심으로 적절하

게 대처하면서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갖는 것이 우울감을 낮추었다(Chae & Yhi, 2004).

2.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북한이탈주민의 정신장애 연구 중 PTSD에 대한 연구는 가장 빈번이 다루어지는 주제 중 하나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 내에서는 ‘처형 장면이나 아사자, 구타, 정치적 과오로 처벌 받는 것을 목격’하는 경험을, 탈북과정에서는 ‘발각이나 낯선 경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북한당국이나 국경수비대의 검열’과 같은 외상사건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ang, 2001). 하나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외상경험에 대한 조사결과, 북한에서는 ‘식량부족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 ‘교화소나 감옥 투옥’, ‘심하게 매를 맞거나 질병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 ‘정치적 과오로 인해 사상성을 의심받는 것’, 탈북과정에서는 ‘은닉’, ‘물 부족, 국경에서 ‘북한 경비병이나 안전원에게 검열 당하는 것’을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un & Yoon, 2004). 북한이탈주민의 PTSD는 하나원 퇴소 후 지역사회로 정착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Park(2007)에 의하면, 서울과 인천 거주 북한이탈주민 총 115명 연구 참여자 모두가 한 가지 이상의 대인 관계적 외상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93.0%가 2개 이상의 외상 경험이 있었다. 북한이탈주민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한 Kim & Yoo(2010)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에서의 평균 외상 경험 수는 4.93이었으며 탈북과정에서의 평균 외상경험 수는 3.03이었다.

2000년대 초기 연구에서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full PTSD와 partial PTSD의 88.0%가 3년 사이에 회복되었고 유병율이 27.0%에서 3년 뒤 4.0%로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ong, 2004). 2008년도에 남한에 입국한 통일부 하나원 여자 교육생 1,465명을 대상으로 MMPI-2 PK 프로파일을 통해 PTSD 비율을 추정한 연구(Kim & Oh, 2010)에서는 전체의 25~30% 정도 PTSD 증상을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주지 특성별 PTSD

는 중국 체류 북한이탈주민(Yoo, 2006; Lee, *et. al.*, 2001), 남한거주 통일부 하나원 교육생(Kang, 2001; Kim, 2010), 지역사회 거주(Suh, 2006; Kim & Yoo, 2010)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샘플 수에 있어서도 100명 이하(Kang, 2001; Yoo, 2006; Lee, 2004), 100-200명(Suh, 2006; Lee, *et. al.*, 2001), 1,000명 이상(Kim & Yoo, 2010; Kim, 2010)으로 매우 다양하다. partial PTSD를 포함시켜서 PTSD를 분류한 연구(Yoo, 2006; Suh, 2006; Hong, 2004)를 제외하면 대부분 PTSD 유무를 통해서 진단하고 있다. PTSD의 측정도구는 Clinician-Administered PTSD Scale (CAPS), Impact of Event Scale(IES-R; Song, *et. al.*, 2011), SCID-PTSD(Cho, *et. al.*, 2010), Posttraumatic Diagnostic Scale(PDS; Kim, 2012; Rho & Won, 2009; Son, 2010), Harvard Trauma Questionnaire (HTQ; Lee, *et. al.*, 2001), DSM-진단기준(Kim & Yoo, 2010; Kim, *et. al.*, 2010; Kim & Jun, 2009; Hong, *et. al.*, 2006; Jeon, *et. al.*, 2008; Lee, *et. al.*, 2011), 외상사건 척도만 북한이탈주민용으로 하고 DSM-IV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 연구(Son, *et. al.*, 2010; Yoon, *et. al.*, 2007), MMPI-PTSD(Yoon, *et. al.*, 2007, Song, *et. al.*, 2011), PAI 하위요인(Yoo, 2006), MMPI-2로 추정(Kim & Oh, 2010)하여 분류하는 방식도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문제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정착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서울과 인천 거주 북한이탈주민 11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2007). 지역사회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Kim & Yoo의 연구(2010)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유병률은 8.7%였으며 여성(10.2%)의 경우 남성(4.4%)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 Yoo, 2010). 이들 선행연구 결과들은 대부분 여성이 남성에 비해 PTSD 유병률이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지역사회 진출 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기간에 따라 PTSD 유병률의 추이 또한 차이가 있다. 남한 거주 3개월 이상이 된 북한이탈주민 133명을 연구한 결과(Suh,

2006) 45.1%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 군으로 나타났다으며 2007년도에 입국하여 남한에 정착한지 평균 17개월이 지난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률은 5.2%로 전체 500명 중 26명이 PTSD로 보고되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률은 2000년도 입국하여 지역사회에서 1년 정도 거주했던 북한이탈주민들의 입국 초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률 25.5%와 비교해 볼 때 감소하였다(Kim, *et. al.*, 2010). Hong (2006)은 2000년에 입국한 200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외상의 종류와 PTSD에 대해 3년 추적연구를 실시하였는데 3년 후 연구대상의 PTSD 88.8%가 3년 사이에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7년 후에 동일한 대상에게 추적연구를 실시한 3차 연구 결과 106명 참여자 중 1.9%인 2명만이 PTSD인 것으로 보고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비율이 현저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Cho, *et. al.*, 2009).

인구사회학적 변인 이외의 PTSD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외상경험(Kang, 2001; Kim, 2012; Cho & Kim, 2010), 문화적응스트레스(Kim & Jung, 2012), 우울 및 불안(Kang, 2001; Kim, 2008; Rho & Won, 2009), 반추(Kim & Jung, 2012; Kim, 2011), 적응유연성 혹은 탄력성(Kim, 2011),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Kim, 2011; Rho & Won, 2009), 사회적 지지(Kim, 2012) 등의 변수였다. 2012년 서울과 경기도 지역 거주 북한이탈주민 9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Kim & Jung, 2012)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외상경험과 의도적 반추에 따른 외상 후 성장과 문화적응이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III. 연구방법

1. 자료의 수집 및 절차

1) 자료검색

논문검색은 학위논문, 전문학술지, 해외학술지, 정책연구보고서 등이었는데 첫째,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Kiss), DBpia,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정보 서비스(Riss4U)의 데이터베이스, 국회 도서

관의 데이터베이스 등 국내외 학술지 검색 사이트에서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탈북(자)”, “우울(감)”, “무망(감)”, “외상(trauma)”, “외상 후 증상”, “외상 후 스트레스”, “PTSD”, “North Korean Refugee”, “North Korean Immigrant”, “North Korean Youth”, “North Korean Defector”로 검색하였다. 연구 시기는 2001년에서 2015년까지로 하였으며 그 결과 석 박사 학위논문 17편, 국내 등재(후보)지 17편, 해외 journal 6편, 정책 연구보고서 4편이 검색되었다. 1차 검색 결과 r값을 포함한 상관연구만 포함하였고, 2차 제외기준은 질적 연구이거나, CES-D, BDI, SCL-90 이외의 척도를 사용하였거나, 상관계수가 부재, 척도의 신뢰도가 부재한 연구, 인구통계학적 특성 기술이 부재한 연구는 제외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한 논문들이며, 메타분석의 특성 상 질적인 연구(Yoo, 2012)는 제외하고 수량적인 형태로 제시된 상관관계로 설명한 자료를 선정하였다. 이에 미술치료를 통한 PTSD 효과성 검증이지만 사례연구를 통해 변화를 본 경우(Lee, 2008), PTSD를 종속변수로 하였지만 통계자료가 없는 경우(Kim, *et. al.*, 2012; Kim, *et. al.*, 2014; Nam, 2012; Lee & Park, 2011; Cho, *et. al.*, 2011; Han, *et. al.*, 2015; Kim, *et. al.*, 2015), 우울이나 PTSD를 종속변수로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보려고 하는 독립변수와 통계자료가 없는 경우(Kim & Jun, 2010; Kim & Oh, 2010; Kim, 2010; Kim, 2012; Choi & Kim, 2011; Emery, *et. al.*, 2015; Jun, *et. al.*, 2015; Shin & Lee, 2015), K-CBCL, HSCL, PAI, SCL-90R, 단순 질문을 통한 패널조사 등과 같이 단독 우울 점수가 없는 경우(Ko, 2010; Kim, 2006; Kim & Shin, 2010; Mook, 2007; Shin, *et. al.*, 2004; Shin, *et. al.*, 2010; Yoo, 2006; Lim, *et. al.*, 2010; Lee, 2005; Lee, 2014; Cho & Kim, 2010; Kim, *et. al.* 2015), 독립변수가 그림반응과 같이 메타분석에 부적절한 경우(Kim, 2011), 동일한 자료로 중단연구를 한 경우(Jun, *et. al.*, 2006) 등의 자료는 배제하였다.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에 있어

서도 통제집단이 없는 실험연구의 경우 모든 참가자들의 점수가 있어야 메타분석에 필요한 ES를 측정할 수 있는데 사용가능한 통계자료가 없는 연구(Oh, *et. al.*, 2008), 통계자료가 전혀 없는 연구(Lee & Joo, 2014)도 삭제하였다.

셋째, 선정된 분석대상 중 학술지와 학위논문 중 게재된 논문은 학위논문의 연구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연구가 학술지 논문에 편중되지 않도록 학위 논문은 공식적으로 출판된 연구가 아니지만, 메타분석을 수행할 때 그 결과가 과장되어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적절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Kim, *et. al.*, 2012). 이에 학위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한 경우(Son & Chang, 2014) 학회지는 배제하고 학위논문으로 하였다. 최종 26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자료수집

자료분석 결과 우울관련 척도는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해밀턴 우울척도(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HAM-D) 등으로 축약이 되었으며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는 CES-D, BDI, HSCL-D, MMPI-D, SCL-90R 등이었다. 이중 CES-D를 사용한 연구가 많았는데 BDI와 CES-D의 하위척도 검토 결과 이질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두 척도를 사용한 연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이 두 척도의 신뢰도가 Cronbach α .75 이상인 연구들(Kim, *et. al.*, 2012)은 모두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이 중에서 다시 독립변수들을 정리한 결과 인구배경학적 변인(성별, 연령, 양적변수 상관, PTSD, 남북한 자료, 미술치료, 회귀분석 등의 연구들이 있었다. 연구대상에 있어서 성인과 청소년이 중복된 경우는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은 청소년으로 분류하기로 하였다.

PTSD 관련 측정은 복합 PTSD는 포함시키지 않고 IES, PDS, DSM기준, 일관되지 못한 척도를 쓰고 있으며, 상관계수 등이 표기 되지 않았거나 인구사회학적인

통계 또한 광범위하였는데, 척도로 구성된 PTSD의 경우에도 외상경험의 차이가 있을 뿐 PTSD 진단을 DSM을 기준으로 한 경우는 모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수집된 논문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변인들을 분류한 결과 인구배경학적 변인, 양적변수와의 상관 및 회귀분석, PTSD, 남북한 자료, 미술치료 등의 연구들이 있었다. 이 중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독립변인으로 선정한 것은 인구 배경학적 변인으로서 성별, 연구대상, 샘플크기였고 우울과 PTSD의 부정적 관련변인으로서 불안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과 PTSD의 긍정적 관련변인으로서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 그리고 우울과 PTSD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이었다. 특히 성별의 경우 가장 다양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어, 종속변수의 종류(우울/PTSD), 연구대상(청소년과 성인/성인), 샘플크기(200명 미만/200명 이상)를 조절변수로 하여 효과크기를 각각 산출하였다. 연구대상에 있어서 성인, 청소년이 중복된 경우는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은 청소년으로 분류하기로 하였다.

2. 분석방법

1) 자료의 코딩 및 분석

일련번호, 논문제목, 저자명, 조사대상(성별, 연령, 정착기간 등), 발행연도, 표집 수, 출처, 독립변인, 종속변인, 통계치(t/F or r , 베파 등)로 코딩하였다. 메타분석은 MIX pro 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효과크기와 연구의 동질성을 분석하였다. 각 연구들의 효과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상관계수 r 을 표준화한 Fisher's Z 값을 이용하였다. 상관계수 대신 집단 간 평균과 표준편차가 제시된 연구들은(예: Kim, *et al.*, 2010; Kim, 2010; Han, 2001) 효과크기 d 값을 먼저 산출한 후, 이를 상관계수 r 과 Fisher's Z 로 환산하였고, 집단의 사례수가 제시된 연구들은(예: Kim, 2004; Kim, 2008; Yoo, 2006) 로그화 된 승산비를 이용해 효과크기를 산출한 후 이를 효과크기 d 로 변환한 다음 r 과 Fisher's Z 로 환산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효과크기를 보고할 때에는 해석의 용이성을 위하여 이를 다시 상관계수 r

로 변환하였으며, 산출된 효과크기에 대해서는 95% 신뢰구간에 따라 통계적 유의미성을 판단하였다. 상관계수 r 에 대한 효과크기는 0.1 이하가 작은 효과크기, 0.25가 중간 효과크기, 0.4 이상이 큰 효과크기로 해석된다(Cohen, 1977).

또한, Q 통계치와 I^2 값을 통해 연구물들의 효과크기에 대한 동질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Q 통계치의 경우 χ^2 분포를 이용하여 유의확률(p)을 제시하므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용이하지만 효과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연구의 수에 민감하여, 사례수나 연구의 수가 적을 때에는 검정력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의확률을 .05가 아닌 .10으로 높여서 적용하였다(Song, *et al.*, 2001).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척도나 연구의 수에 민감하지 않은 통계량인 I^2 을 함께 제시하였다. Q 통계치는 유의수준이 0.05 미만일 때 동질하지 않은 것으로, I^2 통계량은 50% 이상일 때 동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효과크기 산출 대상이 되는 자료들이 얼마나 동질적이었는지를 판단하고, 이질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여 하위집단 분석이나 메타 회귀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집단 분석을 통해 이질성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편, 효과크기의 정확성은 각 연구의 사례 수에 비례한다는 가정 아래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동질성이 만족된 경우에는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을 적용하여 효과크기에 역분산가중치(inverse variance weight)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적용하여 가중최소제곱 추정법(weighted least squares)에 의해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IV. 연구결과

1. 분석대상 논문의 일반적 특징

메타분석에 포함된 26편의 연구는 국내에서 출판된 연구 25편과 해외에서 출판된 연구 1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출판년도는 2001년에서 2014년까지 총 14년간 발표된 논문들이고, 사례 수는 6명에서 1200명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성인만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는 8편이었고, 나머지 18편은 모두 청소년과 성인이 포함된 연구들이었다. 종속변수 중 우울과 PTSD를 모두 포함하는 연구는 1편, 우울만을 포함하는 연구는 17편, PTSD만을 포함하는 연구는 8편이었다. 독립변수로서 성별을 포함하는 연구는 18편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적 관련변인 중 불안울 포함하는 연구는 4편,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포함하는 연구는 2편이었고, 긍정적 관련변인 중 사회적 지지를 포함하는 연구는 4편, 자기 존중감을 포함하는 연구는 3편이었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는 3편이었다.

2. 메타분석 결과

1) 성별의 효과크기

성별을 포함하는 18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북한이탈 주민의 우울과 PTSD에 대한 성별의 효과크기를 분석해

보았다. 우울과 PTSD를 모두 포함한 연구가 2편(Rho & Won, 2009; Yoo, 2009)이었기 때문에, 성별의 효과크기 분석에 사용되는 논문 수(k)는 20개로 산정되었다. 평균 효과크기는 $-.006$ 으로 산출되었으며 95% 신뢰구간이 $-.014$ 에서 $.001$ 로 나타났는데,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가 성별에 따라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편, 효과크기의 동질성 통계량을 살펴보면 $Q=61.789(p=.000)$, $I^2=69.25$ 로 동질성이 만족되지 않았다. 이에, 종속변수의 종류, 연구대상, 샘플크기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효과크기를 각각 산출해 보았다. 우선 종속변수의 종류에 따른 성별의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우울을 포함하는 13편의 논문에서 산출된 평균 효과크기는 $-.003$ 으로 PTSD가 종속변수에 포함되었을 때와 비슷하게 나타났고, 95% 신뢰구간은 $-.017$ 에서 $.010$ 으로 성별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효과크기의 동질성 통계량을 살펴보면 $Q=19.956(p=.068)$, $I^2=39.87$ 로 동질성이 만족되었다. 그러나 PTSD를 종속변수로 하는 7편의 논문에서 산출된 성별

Table 1. List of research paper included from meta analysis

	Study name	N	subject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1	Kang(2001)	95	adolescents+adult	PTSD	anxiety
2	Kwon(2008)	6	adolescents+adult	depression	intervention program
3	Kim, K(2004)	151	adult	depression	sex
4	Kim, B(2008)	46	adult	PTSD	sex, anxiety
5	Kim, Kim, Lee, Kim, Kim, Kim, Bsa, Choi(2011)	144	adolescents+adult	depression	sex
6	Kim, Choi(2013)	70	adult	PTSD	intervention program
7	Kim, Jeon, Cho(2010)	500	adult	PTSD	sex
8	Kim, Lee, Lee, Kim, Shin, Lee(2014)	21	adult	depression	intervention program
9	Kim, J(2012)	97	adolescents+adult	depression	sex
10	Kim, H(2010)	205	adult	PTSD	sex, social support
11	Rho, Won(2009)	105	adolescents+adult	depression, PTSD	anxiety, self-esteem
12	Park(2006)	85	adolescents+adult	depression	sex, self-esteem
13	Eom(2005)	260	adolescents+adult	depression	social support
14	Eom, Lee(2004)	134	adolescents+adult	depression	social support
15	Yoo, S(2009)	200	adult	depression, PTSD	sex
16	Yoo, J(2006)	65	adolescents+adult	PTSD	sex
17	Lee, Bae(2006)	104	adolescents+adult	depression	sex, social support, self-esteem
18	Lee, C(2013)	116	adolescents+adult	depression	acculturation stress
19	Cho, Kim, Yoo(2009)	106	adolescents+adult	depression	sex, anxiety, acculturation stress
20	Cho, Jeon, Yoo, Um(2005)	150	adolescents+adult	depression	sex
21	Chae, Han, Hur, Kim(2003)	145	adolescents+adult	depression	sex
22	Choi, S(2009)	149	adolescents+adult	depression	sex
23	Han(2001)	63	adolescents+adult	depression	sex
24	Hong, Yoo, Cho, Um, Ku, Sae, An, Min, Jeon(2006)	151	adult	PTSD	sex
25	Hong, Jeon, Lee, Kim, Han, Min(2005)	200	adolescents+adult	PTSD	sex
26	Song, Yoo, Kang, Byeon, Shin, Hwang, Lee(2011)	32	adolescents+adult	depression	sex

Table 2. Effect size of gender(male=1)

	homogeneity statistics			k	N	effect size		
	Q	p	I ²			\bar{r}	95% CI	
total	61.789	.000	69.25	20	2,943	-.006	-.014	.001
dependent variable								
depression	19.956	.068	39.87	13	1,576	-.003	-.017	.010
PTSD	17.024	.009	64.76	7	1,367	-.025	-.046	-.004
subject								
adolescents+adult	22.242	.035	46.05	13	1,490	-.005	-.019	.009
adult	28.501	.000	78.95	7	1,453	-.020	-.041	.001
sample size								
200 ≥	21.687	.085	35.44	15	1,638	-.004	-.016	.009
200 ≤	22.872	.000	82.44	5	1,305	-.034	-.058	-.009

k: number of studies, N: total number of case, \bar{r} : effect size given the weight, CI: Confidence Interval

의 평균 효과크기는 -.025, 95% 신뢰구간이 -.046에서 -.004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이는 성별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PTSD가 다르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PTSD에 취약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Q 통계량은 17.024 (p=.009), I²은 64.76으로 동질성이 만족되지 않았다. 이는 PTSD 내에 성별의 효과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대상에 따라 성별의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13편의 연구에 평균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bar{r} = -.005, 95% CI [-.019 .009]),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7편의 연구에서도 평균 효과크기가 유의하지 않았다(\bar{r} = -.020, 95% CI [-.041 .001]). 이는 청소년과 성인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모두에서 우울 및 PTSD에 대한 남녀 차이는 보고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동질성 통계량을 살펴보면 청소년과 성인을 모두 포함하는 13편의 논문은 동질성이 어느 정도 만족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Q=22.242, p=.035, I²=46.05),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7편의 연구는 동질성이 만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Q=28.501, p=.000, I²=78.95). 샘플크기에 따른 성별의 효과크기는 200명 미만의 논문 15편과 200명 이상의 논문 5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00명 미만의 논문에서는 성별의 효과크기가 유의하지 않았으나(\bar{r} = -.004, 95% CI [-.016 .009]), 200명 이상의 대단위 샘플을 사용한 연구에서는 평균 효과

크기가 -.034, 95% CI [-.058 -.009]로 유의하였다. 이는 200명 이상의 연구대상이 포함된 논문에서는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남성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우울이나 PTSD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동질성 통계량을 살펴보면 샘플크기가 200명 미만이었던 15편의 논문은 동질성이 어느 정도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Q=21.687, p=.085, I² =35.44), 2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5편의 연구는 동질성이 만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Q=22.872, p=.000, I² =82.44).

2) 관련변인의 효과크기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관련변인(불안, 문화적응 스트레스)과 긍정적 관련변인(사회적 지지, 자존감)의 효과크기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부정적 관련변인을 다루는 6편의 논문에서 평균 효과크기는 .073이 산출되었으며 95% 신뢰구간이 .045에서 .096으로 나타나 부정적 관련변인이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검증되었다. 이에 대한 동질성 통계량은 Q=21.604(p=.000), I²=76.86으로 동질성이 만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정적 관련변인 중 불안을 다루는 4편의 논문을 따로 분석하는 경우, 평균 효과크기 .104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95% CI [.062 .140]). 이는 불안이 높은 북한이탈주민일수록 우울이나 PTSD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정적 관련변인 중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포함하는 연

Table 3. Effect size of Main variable and Intervention program

	homogeneity statistics			k	N	effect size		
	Q	p	I ²			\bar{r}	95% CI	
negative variable	21,604	.000	76,86	6	633	.073	.045	.096
anxiety	17,947	.000	83,28	4	411	.104	.062	.140
acculturation stress	3,26	.071	69,33	2	222	.235	.157	.301
positive variable	34,024	.000	79,43	8	1,102	-.042	-.060	-.022
social support	30,898	.000	90,29	4	703	-.076	-.109	-.041
self-esteem	3,118	.374	0	4	399	-.091	-.131	-.046
intervention program	.910	.634	0	3	97	-.031	-.120	.078

k: number of studies, N: total number of case, \bar{r} : effect size given the weight, CI: Confidence Interval

구 2편의 평균 효과크기 .235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95% CI [.157 .301]). 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북한이탈주민일수록 우울이나 PTSD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편, 불안의 동질성 통계량은 $Q=17.947(p=.000)$, $I^2=83.28$ 로 동질성이 만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동질성은 $Q=3.26(p=.071)$, $I^2=69.33$ 으로 나타났는데,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포함하는 연구의 수가 2개로 작았음을 고려해 볼 때 Q 통계치의 유의수준을 .05가 아닌 .10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효과크기 역시 이질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불안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모두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이나 PTSD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지만, 그 사이에 제3의 변인이 개입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긍정적 관련변인을 다루는 8편의 논문에 대한 평균 효과크기도 $-.042$ 로 유의했다(95% CI $[-.060 -.022]$). 동질성 통계량은 $Q=34.024(p=.000)$, $I^2=79.43$ 으로 긍정적 관련변인들의 효과크기가 이질적임을 나타냈다. 긍정적 관련변인 중 사회적 지지의 효과크기를 살펴본 4편의 논문에서 평균 효과크기는 $\bar{r}=-.076$, 95% CI $[-.109 -.041]$ 로 유의했다. 이는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식할수록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이나 PTSD는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질성 통계량이 $Q=30.898(p=.000)$, $I^2=90.29$ 로 나타나,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효과크기가 연구마다 상이하게 조사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긍정적 관련변인 중 자아존중감을 포함하는 4편의 연구에서 산출된 효과크기는 $\bar{r}=-.091$, 95% CI $[-.131 -.046]$ 으로 유의

했고, 동질성 통계량은 $Q=3.118(p=.374)$, $I^2=0$ 으로 나타나, 동질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북한이탈주민일수록 우울이나 PTSD가 나타나는 가능성이 낮았고, 이러한 연구결과가 4편에서 모두 비슷하게 보고되었음을 의미한다.

3) 프로그램의 효과크기

북한 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를 낮추기 위한 개입 프로그램들의 효과크기를 살펴보기 위해, 3편의 논문에 보고된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평균 효과크기는 $\bar{r}=-.031$ 로 작은 효과크기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95% 신뢰구간이 $-.120$ 에서 $.078$ 로 산출되어,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못했다. 동질성 통계량은 $Q=.910(p=.634)$, $I^2=0$ 으로 나타나 동질성이 확보되었다. 이는 3편의 연구에서 모두 비슷한 효과크기가 산출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 관련 변인을 탐색하기 위해 관련 연구물을 종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은 무엇인지, 관련 변인들의 평균효과크기, 변인의 효과크기가 연구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 연구결과에 있어서 성별의 평균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하지만 효과크기의 동질성 검증결과, 성별에 따른 우울의 효과크기는 차이가 없었지만 PTSD의 효과크기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남성에 비해 PTSD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여성 난민이 강간과 같은 트라우마 경험으로 인해 남성 난민보다 정신건강이 더 취약하다는 연구결과(APA, 1994; Porter, 2004)나 서울 및 경기지역의 북한이탈 여성이 남성보다 관계적 외상경험도 많고 PTSD에 더 취약하다는 Park(2007)의 연구결과와 일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도출된 개념은 북한이탈주민의 성별이 PTSD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제3의 변인이 샘플크기라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 청소년과 성인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모두에서 우울 및 PTSD에 대한 남녀 차이는 보고되지 않았다. 하지만 연구대상의 샘플이 200명 이상이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즉, 200명 이상의 샘플이 사용된 북한이탈주민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PTSD에 취약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난민의 정신건강에 관한 메타분석 결과(Porter, 2004) 아동/청소년 집단의 적응유연성이 정신건강의 취약성을 완충해주어(Green, *et. al.*, 1991) 성인집단의 정신건강이 더 취약하다는 것과는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200명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PTSD 연구들이 주로 중국과 같은 제3국 체류(Yoo, 2006), 하나원(Kang, 2001; Kim, 2008)과 같은 지역사회 배치 이전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과 관련이 있겠다. 지역사회 배치 이후 북한이탈주민 PTSD의 전체 유병률 8.7% 중 여성이 10.2%, 남성이 4.4%인 Kim & Yoo(2010)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3년간 추적 연구에서 탈북 과정의 심리적 외상보다는 남한 정착 후의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는 Cho, *et. al.*(2005)의 연구에 비추어보았을 때, 남한의 지역사회 배치 후 잠복되어 있던 PTSD가 지역사회 배치 후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함께 지연 반응되는 양상이 북한이탈주민 여성에게 더 뚜렷하다고도 해석해볼 수 있겠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입국동

향을 살펴보면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할 뿐 아니라 자료수집에 더 협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200명 이상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정책 연구보고서(Kim & Yoo, 2010)나 하나원 여성(Kim, 2010) 대상의 연구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첫째, 지역사회 배출 후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위한 PTSD 개입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에 관한 200명 이하의 학위논문이나 개인연구결과에 대한 주의 깊은 해석이 요구된다. 특히 200명 이상의 자료수집이 어려운 탈북 아동 및 청소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PTSD 연구결과는 축소보고 되어 잠재적 위험군으로 개입의 중요성이 간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탈북 청소년과 성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성인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비교했을 때 성별의 효과크기가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및 PTSD에 관한 연구대상을 엄격히 구분하고 연령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중 효과크기가 가장 큰 것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인이었고($\bar{r}=.235$), 그 다음 순은 불안, 자존감이었으며 효과크기가 가장 작은 것은 “사회적 지지” 변인이었다($\bar{r}=-.076$).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관련변인이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및 PTSD를 가장 크게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이나 PTSD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결과(Kim & Jung, 2012; Rho & Won, 2009)들을 지지해주고 있다. 반면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지가 우울 및 PTSD를 완화시켜준다는 선행연구결과(Kim, 2012)를 일부 지지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 개입방안의 우선순위는 문화적응스트레스-불안-자존감-사회적 지지 순이다. 개입 초기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에 기여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 감소에 초점을 두고 그 다음에는 공존률이 높은 불안을 함께 다루는

치료방안이 도움될 것이다. 치료중기나 후반부 개입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 정착과정에서 겪게되는 다양한 좌절 경험에서 손상된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 확보에 목표를 두는 것이 이들의 우울과 PTSD를 치료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우울 및 PTSD는 정신과적인 접근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회문화적인 요인, 그 중에서도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셋째, PTSD를 불안장애의 한 분류로 진단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신건강 개입을 자 문화적 관점에서 치료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자의 문화적 민감성이 길러져야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및 PTSD에 대한 보조적 치료로서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활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남한사회 문화 체험, 학습 및 진로 멘토링, 남북한 주민 통합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사회적 지지망 확보는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및 PTSD에 대한 근본적 치료와 함께 병행함으로써 치료-문화로 연계하는 통합적 접근을 응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및 PTSD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는 불안을 감소시키는 다양한 심리개입(예: 이완훈련, 명상, 마음 챙김) 특히 계슈탈트 프로그램의 효과성(Kim, *et. al.*, 2014) 연구와 상반된 결과라 하겠다. 더 나아가서 소수민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25편의 논문을 메타분석 한 결과 심리사회적 중재가 문화적응을 낮추는 데 중간정도의 효과(0.44, 95% CI: 0.32, 0.56, $p=.001$)가 있다는 Hey & Polo(2008)의 연구(Lee & Yeun, 2012: 706 재인용)와도 상반되었다. 즉, 프로그램을 받아도 우울 및 PTSD가 완화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포함된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연구는 모두 남한의 지역사회 배치 이전 단계인 하나원에서 실시하였기 때문에 정착과정에서 허니문 단계에 있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단기 프로그램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겠다. 본 연구결과를 통한 정책적

합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및 PTSD 개입프로그램은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개입프로그램이 특정 장소에서만 실시된다거나 개인적 차원에서 연구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차원에서 문화적응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도입되어야겠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첫째, 연구 경향의 편중성의 문제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우울 및 PTSD 연구를 포함시키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대상에 있어서 청소년 구분 없이 일반성인과 함께 이루어지다보니 이것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연구가 실태조사 위주로 이루어지거나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우울과 PTSD 이외의 변인에 사회적 관심을 두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바이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대상의 축적된 자료를 메타분석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세부 연령별 우울 및 PTSD의 차이를 비교분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출판편의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 연구자료 중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독립변인과의 상관관계가 없어 삭제된 경우가 많았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연구의 질을 높이고 좀 더 엄격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의 효과크기를 메타분석 하기 위해 포함된 연구 편수가 적고 비교집단이 설정된 연구가 거의 없는 등 연구의 질이 다소 높지 않아 일반화 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셋째, 우울 및 PTSD의 측정방법이 다양하고 연구대상에 대한 연령별, 남한거주 기간별 범주의 편차가 심하여 이를 독립변인으로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 변수 자체는 독립변수로 사용되지 않았고, 성별에 대한 조절변수로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대상이 청소년과 성인/성인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연령의 효과를 보기는 어려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배제된 북한이탈주민의 정신

건강 관련 질적 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도 추후연구로 남겨두는 바이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및 PTSD 관련 기존 선행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및 PTSD 예측변인 및 중재연구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References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Washington, DC.
- Chae, J. and J. Yhi. 2004. North Korean Defectors Individuality-relatedness Affecting Their Psychological Adaptation.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9(4): 793-814.
- Cho, H. 2013. An Effectiveness of a Group Art Therapy Program with the Solution Focused Model for North Korean Married Women Defector's Psychological Adjustment-Focusing on Depression and Guilty Feeling Caused by the Family Loss. Masters Thesis. Sangmyung University.
- Cho, S., W. Jeon, S. Yoo., J. Eum, and C. Hong. 2005. The 3 Year Follow-up Study of Social Adap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Korean Unification Studies*. 9(1): 73-105.
- Cho, Y., W. Jeon, S. Yu, and J. Um. 2005. Predictor of Depression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A 3-year Follow-up Study. *Korean J. Couns Psychother*. 17(2): 467-484.
- Cho, Y. and Y. Kim. 2010. Predictors of Mental Health Risks in Newly Resettled North Korean Refugee Women.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Women Psychology*. 15(3): 509-527.
- Cho, Y., Y. Kim, and H. Kim. 2011. Influencing Factors for Problem Behavior and PTSD of North Korean Refugee Youth. *Adolescent Studies*. 18(7): 33-57.
- Cho, Y., Y. Kim, and S. Yu. 2009. Predictors of Depression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A 3 Year Follow-up Stud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1(1): 329-348.
- Choe, H. and C. Son. 2011. The Effects of the Korean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K-MBSR) Program 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Experiential Avoidance, and Shame in North Korean Defector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6(3): 469-482.
- Choi, B. and H. Kim. 2011. Effect of Traumatic Experiences and Personality Pathology of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on Psychological Symptom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3(1): 195-212.
- Choi, S. 2009. Study of Religious Activities and Depression Scale in North Korean Defector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Cohen, J. 1977.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Revised Edi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Eom, T. 2004. (A) Study on the Buffering Effect in the Occurrence of Depression Caused by Hopelessness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 Eom, T. 2005. A Strategy of the Mental Health for the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Residents. *Korean Unification Studies*. 14(1): 297-324.
- Eom, T. and K. Lee. 2004.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Problem Solving Capability,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Mental Health & Social Work*. 18: 5-32.
- Green, B. L., M. Korol, M. Vary, A. Leonard, G. Gleser, and S. Smitson-Cohen. 1991. Children and Disaster: Age, Gender and Parental Effects on PTSD Symptom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0: 945-951.
- Han, I. 2001. Depressive Traits of North Korean Defectors. *Mental Health & Social Work*. 11: 78-94.
- Han, N., S. Lee, S. Yoo, S. Kim, J. Jun, S. Won, and M. Shin. 2015. Predictors of PTSD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Visited Psychiatric Depart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Treatment Center.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54(1): 105-111.
- Hong, C., W. Jeon, C. Lee, D. Kim, M. Han, and S. Min. 2005. Relationship between traumatic events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North Korean refugees.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44(6): 714-720.
- Hong, C., J. Yu, Y. Cho, J. Eom, H. Ku, S. Sao, et. al. 2006. A 3-year Follow-up Study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45(1): 49-56.

- Hong, C. 2005. The 3 Year Follow-up Study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of North Korean Defector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Hong, H. 2014. The Relationship of Acculturation Stres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Depression of Saetomin (North Korean defector) Adolescents.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 Jeon, W. T., S. E. Yu, Y. A. Cho, and J. S. Eom. 2008. Traumatic Experiences and Mental Health of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Psychiatry Invest.* 5: 213-220.
- Jun J. Y., Y. J. Lee, S. H. Lee, S. Y. Yoo, J. E. Song, and S. J. Kim. 2015. Association between Defense Mechanisms and Psychiatric Symptoms in North Korean Refugees. *Comprehensive Psychiatry.* 56: 179-187.
- Kang, H. 2008. A Study on the Psychosocial Adjustment of North Korean Refugee Youth. Masters Thesis. Myungji University.
- Kang, S. 2001. Development of Trauma Scale for North Korean Refugee.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Kim, H. and M. Jeon. 2003. Individual Difference in North Korean Refugee on MMPI. *Korean Unification Study.* 7(2): 129-160.
- Kim, S., H. Kim, Y. Lee, H. Kim, J. Kim, S. Kim, S. Bae, and S. Cho. 2011.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Psychiatric Symptoms in North Korean Defectors. *Psychiatry Invest.* 8(3): 179-85.
- Kim, B. 2008. Natural Killer Cell Activity in North Korean Defectors with PTSD. Doctoral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Kim, B. and S. Yoo. 2010. *North Korean Defectors Panel Study (Economic Adaptation, Mental Health Physical Health)*. North Korean Refugees Foundation.
- Kim, H. 2012. The Effect of TSL Family Program on Mental Health and Marital Adjustment among the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Focusing on the BioMedicoSocial(BMS) Perspective.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 Kim, H. 2010. A Study on the Recovery Predictive Factors for North Korean Refugees with Torture Experienc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1(3): 81-106.
- Kim, H. 2010. The Relation between Defense Mechanism and Mental Health Problems of North Korean Female Refugee.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Woman Psychology.* 15(1): 155-173.
- Kim, H. 2012. Difference on Complex PTSD and PTSD symptoms according to types of traumatic events in North Korean Refugee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1(4): 1003-1022.
- Kim, H. and S. Oh. 2010. The MMPI-2 Profile of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9(1): 1-20.
- Kim, H., Y. Cho, and Y. Kim. 2012. Validation of Resilience Scale for North Korean Youth in Sou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School Psychology.* 9(1): 25-46.
- Kim, H. and W. Jeon. 2009. A Study on the Quality of Life and Posttraumatic Growth among North Korean Refuge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0(2): 363-396.
- Kim, H. and J. Jun. 2010. Diagnostic Efficiency of MMPI-2 of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Comparison between Psychiatric Outpatient and Normal Control Group.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9(2): 335-353.
- Kim, H. and H. Shin. 2010. Psychological Symptoms Before and After the Settlement in the South Korean Society of North Korean Refugees according to Gender and Ag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9(4): 707-724.
- Kim, J. 2012. The Effect of North Korean Defectors' Authoritarianism on Their Psychological Adaptation in South Korea: Comparing with South Koreans' Pattern.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
- Kim, J., J. Choi, and W. Ryou. 2012. Impact of PTSD on North Korean Defector's Social Adjustment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3(4): 343-367.
- Kim, J., S. Lee, L. Lee, J. Kim, J. Shin, and D. Lee. 2014. The Effects of Gestalt Relationship Improvement Program (GRIP) on Psychological Stability of North Korean Defector: on the Self-concept, Sociotropy-autonomy, Impulsivity, Anxiety, and Depression. *The Journal of Play Therapy.* 18(1): 89-103.
- Kim Y. H., W. T. Jeon, and Y. A. Cho. 2012. A Study on the Prevalence and the Influencing Factors of the Mental Health Problems Among Recent Migrant North Koreans: A Focus on 2007 Entrants. *Korean Unification Studies.* 19(2): 141-174.

- Kim, K. 2004. The Analysis of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the Health Utilization Satisfaction among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Kim, L., S. Park, and K. Park. 2014. Anxiety and Depression of North Korean Migrant Youth: Effect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2(7): 55-87.
- Kim, M. 2005a. The Effect of the Perceived Adjustment Stress and the Coping Resources on the Depressive Symptom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The Comparison Men and Women.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20(8): 95-124.
- Kim, M. 2005b. The Adjustment Stress and the Effect of the Social Support on the Adaptation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Korean Journal of Social Work*. 57(1): 193-217.
- Kim, S. 2011. Response Characteristic of 'Person in the Rain' Drawing Test on Post-traumatic Stress and Depression of North Korean Refugees. Masters Thesis, Taegu University.
- Kim, S. and B. Choi. 2013. The Effect of PTSD Program of North Korean Refugees: for North Korean Female Refugee.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8(4): 533-548.
- Kim, S., H. Ko, S. Park, and E. Yang. 2012. Factors Related to Depress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South Korea: A Meta-analysis.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 18(4): 533-555.
- Kim, T. and E. Jung. 2012. Relationship between Time after Traumatic Experience and Posttraumatic Growth of North Korean Defectors. *School Bulleti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37(2): 147-173.
- Kim, Y. 2006. A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Mental Health: An Application of a Stress Process Model.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Ko, E. 2010. A Study on Effect on Adaptation for South Korean Society of North Korean Defection Children by Group Art Therapy.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 Kwon, T. 2007. A Study on the Effect of Short-term Social Adaptation Program for New North Korean Defectors. Masters Thesis, Mokwon University.
- Lee, C. 2013.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and Resilience on Depression of College Students from North Korea.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Lee, K. and S. Bae. 2006. Identifying Factors Affecting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Korean Unification Studies*. 15(2): 1-28.
- Lee, K. and T. Eom. 2003. The Effects of Hopelessness on Depression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Mental Health & Social Work*. 16: 5-28.
- Lee, K. and Y. Yeun. 2012. A Systematic Review of Research on Acculturative Stress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7(3): 697-709.
- Lee, M. and E. Joo. 2014. A Preliminary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a Program to Reduce Trauma and Acculturative Stress of Saetomin Female Children: With a Focus on Korean-style Focusing-oriented Arts.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nual Convention*: 393-393.
- Lee, M., and K. Park. 2011. Traumatic Experience and Depression in Women Fugitives of North Korea: Moderating Effects of Optimism and Cognitive Emotional Regulation Strategy. *Psychotherapy: Multidisciplinary Approach*. 11(1): 1-29.
- Lee, S. 2005. The Study of Influencing Factors for Mental Health of North Korean Refugee Youth. Masters Thesis, Chongshin University.
- Lee, S. 2008.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Depressions of the Children of the 'New Settlers'. Masters Thesis, Pyeungtaek University.
- Lee, Y., M. K. Lee, K. H. Chun, Y. K. Lee, and S. J. Yoon. 2001. Trauma Experience of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20(3): 225-229.
- Lim, J., H. Shin, and H. Kim.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Psychological Symptoms: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oping Style.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9(2): 631-638.
- Mook, H. 2007. The Relationship of Psychological Adaptability, Cultural Adaptive Stress, and Social Support among Youth In Saeteomin.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 Nam, B. 2012. (A) Comparative Study of Wife Abuse between North Korean Defectors and South Koreans: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Acculturation and PTS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Park, C.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Trauma

- Exposure, Experiential Avoidance, Forgiveness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in North Korean.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Park, J. Y., J. Y. Jun, Y. J. Lee, S. H. Kim, S. H. Lee, S. Y. Yoo, and S. J. Kim. 2015. The Association between Alexithymia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Following Multiple Exposures to Traumatic Events in North Korean Refugee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78: 77-81.
- Park, S. 2006. A Study on the Life Stress, Self-esteem and Depression Status of Saetomins in Gwangju City and Jeonnam Province.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Porter, M. 2004. *Moderators of Mental Health Refugees: A Meta-analysis*. New School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Rho, I. S. and J. S. Won. 2009. The Relationship of Depression, Anxiety, Post-traumatic Stress, Self-esteem, and Social Adjustment among North Koran Refugees. *J. of Korean Acad. Pshchiatr. Ment. Health Nurs*. 18(1): 69-77.
- Roh, D. 2001. The Influences of Individual Differences on Adjustment and Mental Health in North Korean Refugees.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 Shin, G. S. and S. J. Lee. 2015. Mental Health and PTSD in Female North Korean Refugees.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36(4): 409-423.
- Shin, H., H. Kim, and J. Lim. 2010. Development of the Brief Psychological State Inventory for North Korean Refugee (BPSI-NKR). *The Korean Journal Clinical Psychology*. 29(3): 777-798.
- Shin, H., J. Yi, and S. Han. 2004. Cultural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n Cultures.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0(1): 147-163.
- Son, E. 2010. The Symptoms of Stress that Follow Complex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Son, E. and M. Chang. 2014. Complex PTSD Symptoms and Psychological Problem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9(4): 973-992.
- Son, Y., J. Lee, M. Park, and S. Lee. 2010. Influence of Posttraumatic Stress on the Mental Health among Adolescents of North Korean Refugees. *Anxiety and Mood*. 6(1): 37-44.
- Song, B. A., S. Y. Yoo, H. A. Kang, S. H. Byeon, S. H. Shin, E. J. Hwang, and S. H. Lee. 2011.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Depression, and Heart-rate Variability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Trauma in Psychiatry*. 8(4): 297-304.
- Song, F., T. A. Sheldon, A. J. Sutton, K. R. Abrams, and D. R. Jones. 2001. Methods for Exploring Heterogeneity in Meta- analysis. *Evaluation & Health Professions*. 24: 126-151.
- Statistics Korea, North Korea Statistics. 2015. Major Statistics Indicators of North Korea. Retrieved from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518>
- Suh, J. 2006. Exploratory Research on North Korean Defector PTSD and Adjustment to South Korea.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Yoo, H. 2012. Analysis of the North Korean System-trauma Anxiety through North Korean Refugees: Based on the Phenomenological Metho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 Yoon, Y., H. Kim, and S. Han. 2007. Validation and Development of a Post-traumatic Stress Symptom Scale for Dislocated North Koreans in South Korea. *Korean J. Couns. Psychother*. 19(3): 693-718.
- Yu, S. 2006. Mental Health of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during the Protection Perio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Yu, S. 2009. Factor Analysis of Economic Adap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A 7-year Panel Study(2001~2007).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강성록. 2001. 탈북자의 외상 척도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효립. 2008. 탈북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불안, 우울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은희. 2010. 집단미술치료가 새터민 아동의 남한사회적응에

- 미치는 효과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태용. 2007. 신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단기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우울과 대인관계를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철. 2004. 남한 내 북한 이탈 주민의 건강 상태 및 의료 이용 만족도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린, 박세훈, 박경자. 2014. 북한이탈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 연구. 12(7): 55-87.
- 김미령. 2005a. 북한이탈주민이 인지한 적응의 어려움과 극복 자원이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남성과 여성의 비교.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0(8): 95-124.
- 김미령. 2005b. 탈북자의 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우울 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7(1): 193-217.
- 김병창, 유시은. 2010. 북한이탈주민 패널연구: 경제·정신보건·신체건강.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연구보고서.
- 김병창. 2008.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자연 살해 세포 활성화도.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상미. 2011.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과 '빛속의 사람' 그림의 반응 특성.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석주, 김효현, 이유진, 조성진 외. 2011.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과적 증상과 유병률. 신경정신의학. 8(3): 179-185.
- 김선미, 고하영, 박수현, 양은주. 2012. 메타분석을 통한 국내 아동, 청소년의 우울 관련 변인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8(4): 533-555.
- 김승현, 최빛내. 2013.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PTSD 프로그램 효과검증: 탈북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 여성. 18(4): 533-548.
- 김연희, 전우택, 조영아. 2010.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문제 유병율과 영향요인. 통일정책연구. 19(2): 141-174.
- 김연희. 2006. 북한이탈주민의 정신보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규, 이상하, 이린아, 김정환, 신지영, 이동훈. 2014. 계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이 하나원 거주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 놀이치료연구. 18(1): 89-103.
- 김종남. 2012. 북한이탈주민의 권위주의가 남한 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효과: 남한주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19: 175-189.
- 김태국, 정은의. 2012. 북한이탈주민의 외상경험과 의도적 반추에 따른 외상후성장과 문화적응. 북한학보. 37(2): 147-173.
- 김현경, 전우택. 2009.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이 외상 경험 이후 심리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0(2): 363-396.
- 김현경. 2010. 북한이탈주민의 고문으로 인한 외상 후 충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연구. 41(3): 81-106.
- 김현아, 전명남. 2003. MMPI에 나타난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차 특성. 통일연구. 7(2): 129~160.
- 김현아, 조영아, 김연희. 2012.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척도 개발을 위한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1): 25-46.
- 김희경, 신현균. 2010. 지역사회 정착 전후 북한이탈주민의 성 및 연령별 심리 증상.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707-724.
- 김희경, 오수성. 2010. 탈북 여성의 MMPI-2 프로파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1): 1-20.
- 김희경, 전진용. 2010. 탈북 여성의 MMPI-2의 진단적 유용성: 정신과 내원군과 정상 대조군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2), 335-353.
- 김희경. 2010. 탈북 여성의 방어기제와 정신건강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1): 155-173.
- 김희경. 2012.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유형에 따른 복합 PTSD와 PTSD 증상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4): 1003-1022.
- 김희진. 2012. 탈북여성의 정신건강과 부부적응을 위한 TSL 가족프로그램개입 효과: 의생명사회과학적관점 Bio Medico Social(BMS) Perspective)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보영. 2012. 탈북 남성과 남한 남성의 가정폭력 비교연구: 남한사회적응과 PTSD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대균. 2001. 탈북자의 개인차 요인이 적응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인숙, 원정숙. 2009. 새터민의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자아 존중감 및 사회적응 간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18(1): 69-77.
- 목혜연. 2007. 새터민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과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성숙. 2006. 광주·전남지역 새터민의 생활스트레스, 자아

- 존중감 및 우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철옥. 2007. 새터민의 대인 관계적 외상경험, 용서, 경험회피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주연. 2006.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용훈, 이주실, 박민철, 이상열. 2010. 북한이탈 청소년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대한불안학회지. 6(1): 37-44.
- 장문선, 손의정. 2014. 북한이탈주민의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심리적 문제. 한국심리학회: 건강. 19(4): 973-992.
- 손의정. 2010. 북한이탈주민의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따른 심리적 증상.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혜향. 2006. 의학, 간호학, 사회과학 연구의 메타분석. 서울: 청문각.
- 신행우, 이종한, 한성열, 허태균, 채정민. 2004. 이문화권 내 적응과 스트레스 대처양식: 북한이탈주민 남한문화 적응의 관점에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1): 147-163.
- 신현균, 김희경, 임지영. 2010. 북한이탈주민용 간이심리상태 검사 개발 및 신뢰도,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3): 777-798.
- 엄태완. 2004. 북한이탈주민의 무망감에 대한 우울증 완충효과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엄태완, 이기영. 2004.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8: 5-32.
- 엄태완. 2005. 남북주민 통합을 위한 정신건강전략: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주민, 일반주민과의 비교를 통하여. 통일정책연구. 14(1): 297-324.
- 오수성, 김희경, 김석용, 최영미. 2008.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PTSD 극복 프로그램 개발. 통일부 정책연구.
- 유시은. 2009.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 영향 요인 분석: 7년 패널조사(2001-2007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정자. 2006. 재중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보 호기관 대상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혜란. 2012. 탈북민을 통하여 본 '북한체제트라우마'(NKST) 불안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여상, 김현아, 한선영. 2007.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693-718.
- 이경순, 연영란. 201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7(3): 697-709.
- 이경희, 배성우. 2006.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통일정책연구. 15(2): 1-28.
- 이기영, 엄태완. 2003. 북한이탈주민의 무망감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6: 5-28.
- 이명순, 박경. 2011. 북한이탈여성의 외상경험과 우울: 낙관성의 중재효과. 심리치료: 다학제적 접근. 11(1): 1-29.
- 이민정, 주은선. 2014. 새터민 여아의 외상 및 문화적응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적 포커싱아트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393-393.
- 이선윤. 2005.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총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신숙. 2008. 집단미술치료가 새터민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 평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채영. 2013. 탈북 대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적응유연성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 2014. 탈북청소년 공부방 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활용 및 평가: 집단치료 놀이를 중심으로. 통일부 신진연구논문집: 372-438.
- 임지영, 신현균, 김희경. 2010. 남한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스트레스, 지각된 사회적 지지, 대처방식과 전반적인 심리증상 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2): 631-638.
- 전우택, 윤덕룡. 2004.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이 경제적 자생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서울: 통일부 연구용역 보고서.
- 전우택, 홍창형, 유정자, 조영아, 엄진섭, 구현지, 서승원, 안은미, 민성길. 2006.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3년 추적연구. 신경정신의학. 45(1): 49-56.
- 조영아, 김연희, 김현아. 2011.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18(7):

- 33-57.
- 조영아, 김연희, 유시은. 2009. 남한 내 7 년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예측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329-348.
- 조영아, 김연희. 2010. 초기 거주 북한이탈여성의 정신건강 고위험군 예측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3): 509-527.
- 조영아, 전우택, 유시은, 엄진섭. 2005.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예측 요인: 3년 추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467-484.
- 조영아. 2005.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예측 요인: 3년 추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17(2): 467-484.
- 조하나. 2013. 북한이탈 기혼여성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해결 중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가족상실로 인한 우울감 및 죄책감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정민, 이종한. 2004.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성-관계성이 남한 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793-814.
- 채정민, 한성열, 허태균, 김동직. 2003. 북한이탈주민용 문화적응 전략 척도 개발.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2002년 동계학술대회: 85-94.
- 최빛내, 김희경. 2011. 탈북 여성의 외상 경험과 성격병리가 심리 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1): 195-212.
- 최승주. 2009. 북한이탈주민의 종교 활동과 우울정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현옥, 손정락. 2011. 한국형 마음챙김에 기반 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이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경험회피 및 수치심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3): 469-482.
- 통일부. 2015.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15.5월말 입국자 기준). 2015.09.17.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518>
- 한나영, 이소희, 유소영, 김석주, 전진용, 원성두, 신미녀. 2015. 북한이탈주민진료센터 정신건강의학과를 내원한 북한이탈주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사회 적응 및 삶의 질 관계.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54(1): 105-111.
- 한인영. 2001.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성향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1: 78-94.
- 홍창형, 유정자, 조영아, 엄진섭, 구현지, 서승원 외. 2006.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3년 추적연구. 신경정신의학. 45(1): 49-56.
- 홍창형, 전우택, 이창호, 김동기, 한무영, 민성길. 2005. 북한이탈주민들의 외상경험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의 관계. 신경정신의학. 44(6): 714-720.
- 홍창형. 2004.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3년 추적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호연. 2014. 새터민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우울 간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에 관한 메타분석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외에서 발표된 연구 자료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 관련 변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 자료의 수집은 데이터베이스(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Kiss), DBpia,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정보 서비스(Riss4U), 국회 도서관)에서 검색하였다. 자료 분석은 국내외 학술자료 44편의 연구 중에 26편의 연구를 최종 선택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N=3,400$). 자료검색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주요 변인은 성별, 연령별, 연구샘플, 문화적응스트레스, 불안, 자존감, 사회적 지지, 개입프로그램 8개였다. 성별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우울($r=-.003$)과 PTSD($r=-.025$) 간의 평균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종속변수의 종류, 연령별, 샘플크기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효과크기를 산출한 결과 200명 이상의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200명 이하의 남성 북한이탈주민 연구에 비해 우울이나 PTSD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관련변인의 효과크기를 검증한 결과 우울과 PTSD에 효과크기가 가장 큰 것은 문화적응스트레스변인이었고($\bar{r}=.235$), 효과크기가 가장 작은 것은 사회적 지지($\bar{r}=-.076$)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추후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북한이탈주민, 우울, PTSD, 메타분석

Profiles **Hyun Ah Kim** : She received the doctor's degree in department of education. in June 2006(Thesis: Development of Resilience Scale for Dislocated North Koreans in South Korea), fro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She is in active duty of incumbent Professor at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Seoul Cyber University, Seoul, Korea. Her area of interest is counseling psychology, North Korean mental health, trauma resilience. Her important papers are "A mediation effect of ego resiliency between stresses and mental health of North Korean refugees youth in South Korea(2015)", "The experience of the One-Person Household among the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2014)", "The influence of ethnic identity and acculturative stress of 1.5 generation Korean immigration adolescents on their levels of psychological adjustment"(haha6082@isu.ac.kr).